

■ 거시 경제 추이

1999년에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경제 안정의 기틀이 잡혔음. 2000년에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sup>*)</sup>
경상GDP(조 원) (억 달러)	377.3 (4,894)	418.5 (5,200)	453.3 (4,776)	449.5 (3,213)	483.8 (4,067)	-
GDP성장률(%)	8.9	6.8	5.0	-5.8	10.7	7.8
1인당GNI(달러)	10,823	11,380	10,307	6,823	8,581	-
경상수지(억 달러)	-85.1	-230.0	-81.7	405.6	250.0	90.0
외환보유고(억 달러)	327.1	332.4	204.1	520.3	740.5	-
총외채(억 달러)	784	1,643.4	1,580.6	1,493.5	1,364	-

주: \*) 전망치(HRI)임

■ 경제 디지털화 지수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수준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같은 선발 개도국권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설비 지수	천명당		활용 지수	인터넷 사용자 비중(%)	GDP 대비 EC규모(%)	디지털화지수
		컴퓨터수	인터넷 호스트수				
미국	100.0	499	87.15	100.0	37.4	0.831	100.0
캐나다	70.8	400	53.53	40.1	25.4	0.102	55.4
영국	45.3	323	22.63	32.0	18.0	0.132	38.7
일본	33.6	272	11.03	23.8	11.1	0.149	28.7
싱가포르	42.2	344	13.45	37.5	14.7	0.297	39.9
대만	27.4	178	16.71	26.4	14.3	0.121	26.9
한국	17.5	150	4.22	14.5	6.7	0.092	16.0
말레이시아	8.9	78	1.93	17.1	3.0	0.218	13.0

자료: WEFA(1999), World Economic Outlook; IMD(1999),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http://www.nua.ie>

주: 1) 컴퓨터수, 인터넷 호스트수는 1998년,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1999년, GDP대비 EC규모는 1998년 기준

2) 유사 지표로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수'나 IDC사의 ISI(Information Society Index) 등이 있으나, 디지털화 지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인터넷 사용자 비중과 전자상거래 규모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별 편차가 상당한 실정임. 산업별로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	화학제품	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1990년	0.403	0.261	0.285	0.364	0.155	0.773	21.162	5.622
1993년	0.614	0.368	0.401	0.580	0.444	0.848	19.936	7.410
1995년	0.711	0.238	0.347	0.404	0.394	0.632	24.200	9.748
	수송기기	전력가스	건설	도소매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산업전체
1990년	0.474	0.245	0.951	13.695	1.627	25.318	6.084	7.184
1993년	0.905	0.476	0.724	13.539	0.956	22.952	5.786	6.159
1995년	0.606	0.572	0.666	15.241	1.004	20.635	6.783	8.52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0, 1993, 1995년 호

주: 디지털 투입 비중은 산업연관표 168개 소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산업의 중간투입 중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방송기기, 통신서비스 등 4가지 항목의 비중을 계산한 것임

■ 우리나라의 지역별 디지털화 수준

서울 지역과 그외 지역간 디지털화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지역 디지털화 지수	
	사회 디지털화 지수	경제 디지털화 지수
서울	207.80	274.2
인천·경기	86.2	60.5
충북	76.7	48.2
대구·경북	81.8	62.8
대전·충남	63.4	59.6
부산·울산·경남	55.7	58.6
강원	51.4	53.6
전북	48.8	47.3
제주	52.1	52.7
광주·전남	53.9	61.8
전국 평균	100.0	100.04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컴퓨터산업협의회(2000), 「99년 한국의 컴퓨터 보급 현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1999), 「99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통계청(1999), 「지역통계연보」; 현대경제연구원(2000. 6), 「지식경제리포트」

주: 각 지수는 전국을 100.00으로 삼아 계산한 한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지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기준의 수치들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구 개발 투입 및 성과 비교

우리나라의 지식 투입 지표들은 대체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기술 및 지식의 적용 능력 미비로 지식 성과 지표들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지식 투입		지식 성과		
	GDP대비 R&D투자 비중%(1998년)	인구 만명당 상근연구원수(1996년)	인구 만명당 특허등록수(1997년)	GDP대비 지식집약산업 비중%	기술 수출/도입 비율(1997년)
미국	2.79	37.4(93)	4.1	15.8	358
일본	2.92(97)	49.8	11.7	14.5	150
독일	2.33	28.3(95)	6.7	11.2	85
프랑스	2.23(97)	26.5	8.6	11.9	72
영국	1.87(97)	24.8	7.7	13.9	81(96)
한국	2.52	19.9(98)	5.3	8.2	6(95)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999; WIPO,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 1999; 과학기술부 통계 자료

■ 교육 경쟁력 비교

지식 형성의 기초인 교육 부문에서 공공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련 인프라가 미흡해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가 낮음

	GNP대비 교육부분 공공 지출 비중%(1996년)	인구 1인당 공교육비 지출(US 달러)(1995년)	대학생 100명당 교수수(1996년)	국가 경쟁력 기여 정도(1997년)
미국	5.4	1,385.6	6.0	4.909
일본	3.6	1,360.9	5.5	3.868
독일	4.8	1,404.2	6.1	5.615
프랑스	6.1	1,594.1	-	4.847
영국	5.4	1,009.7	18.2	4.250
한국	3.7	370.8	3.1	2.963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 Yearbook*, 1999; 과학기술부, 「1998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8;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1998; OECD, *Human Capital Investment*, 1998.

주: 경쟁력 기여도(0~10)는 IMD가 교육제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정도를 설문 조사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